

# 내달부터 공매도 제한한다

## 총거래액 대비 5%초과 종목 10일간 공매도 금지

### 대차거래 담보비율도 140%수준으로 상향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국 등 전세계에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달 13일부터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시장의 불안 해소와 증시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규제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데다 올해 국내 시장에도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공매도를 제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20영업일 간 공매도 금액이 코스피시장에서 총 거래액 대비 5%(코스피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영업일 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냉각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한 종목은 공매도액 비율이 한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36개 코스피 종목과 9개 코스닥 종목이 금융위가 이번에 설정한 공매도 한도를 초과했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가 공매도용 주식을 일정기간 빌리는 대차거래도 제한하기 위해 증권에탁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대차거래의 담보비율도 현 90~110%에서 14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적격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사후에 결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내달 중에 대차거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에탁결제원 등에 분산된 대차거래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시켜 공매도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공매도(Short Selling)=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을 말한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관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되사 차익을 챙기는 기법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A종목 1주를 빌려 2만원에 매도할 경우 이 종목의 주가가 며칠 뒤 1만 5천원으로 떨어지면 5천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 “한국 경제 리스크 증가”

韓銀 주최 경제간담회 주장 경제 전문가들은 24일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리와 환율이 급변동하는 등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상태 한은 총재 주최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 불안은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들의 대출 태도가 신중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원만 홍익대 교수,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경제예측 부문 자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은 이날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 “하반기 물가도 고유가 영향 순채무국 전환 추세에 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재 총외채 분야에서 순채무국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서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물가는 하반기에도 고유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경수수지는 올해 100억달러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현재 유일하게 수출은 잘되고 있지만 9월 들어 수출도 조금 둔화되는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강 장관은 “지난 3~4년간 늘었던 환율이 올해 들어 튀어오르는 효과가 컸다”면서 “물가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써 가면서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워낙 높았었고, 유가 상승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고환율 정책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는 것이 고환율 정책인데 새 정부 들어 과거의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고환율주의자도, 저환율주의자도 아니고 환율은 펀더멘탈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고유가 여진 계속 ... 값 비싼 철강재 수입 급증 무역수지 ‘적자행진’ 비상

### 올들어 對日적자 232억달러

고유가 탓에 적자행진을 벌여온 무역수지에 비상등이 켜졌다.

고유가가 다소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수입단가가 여전히 높은데다 철강재 수입의 급증과 수출 증가를 둔화해 겹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이 달에도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올들어 8월까지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23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229억9천여만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291억8천여만 달러로, 무역적자가 61억9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런 적자규모는 고유가의 영향이 극대화됐던 지난 달 20일까지의 적자액 60억5천700만 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유가하락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이렇게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데는 수입과 수출에서 모두 대형 약세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수입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철강재에 수출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철강수요업체들이 대규모 수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 적자확대의 큰 요인이다.

그간 무역적자의 주범이었던 원유도 도입계약 탓에 국제시세와 1개월 반 가

량의 시차가 있어 9월 도입단가가 다소 낮아졌다지만 여전히 배럴당 110달러선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매일 20%선에 육박하던 수출 증가율도 반도체 제품의 지속되는 가격 약세에 현대차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이 겹치면서 10%대 중반선으로 내려 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월말에 수출이 집중된 점을 감안해도 지난달 적자(38억1천만 달러)는 물론, 올해 들어 월별 최대적자를 낳던 1월(39억9천200만 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들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5월 한 달을 빼고 매일 적자였으며 8월까지 적자누계가 123억4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232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연간 대일 적자규모인 299억달러의 77%에 이르는 액수다.

한국은행은 이날 펴낸 ‘대일 무역역조 고착화의 원인과 향후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대일 무역 적자규모는 1990년 59억달러에서 2000년 114억달러, 2007년 299억 달러로 빠르게 늘어났다. /연합뉴스



국내 첫 친환경 LPG 중형트럭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LPG협회와 세계LPG협회가 ‘저탄소 세상을 위한 청정에너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1회 세계LPG(액화석유가스)포럼 행사장에 국내 최초의 친환경 LPG 중형트럭이 선보였다. 이 트럭은 오는 2010년 상용화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국내 최장수 브랜드 ‘부채포 활명수’ 111살

1897년 9월 25일 고종황제때 탄생

국내 최장수 브랜드 ‘부채포 활명수(사진)’가 25일로 탄생 111주년을 맞는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부채포 활명수는 국내 최초 등록상표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활명수의 탄생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한 18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 또는 경호실 요원에 해당하는 궁중 선전관이던 노천(老川) 민병호는 궁에서 쓰던 생약 비방에 양약의 장점을 결합, 다리지 않고 복용할 수 있는 혼합처방을 고안했는데 이것이 활명수의 시초다. 그해 9월 25일은 활명수가 처음으로 상품화 된 날로 동화약품은 이날을 회사 창립기념일로 정했다.

급체, 소화불량이 흔했지만 별다른 약이 없어 민간요법



에 의지하거나 달여 먹는 탕약 위주였던 시기에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복용이 간편한 활명수는 ‘생명을 살리는 물(活命水)’로 민간에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활명수의 약효성분은 모두 생약성분으로 아산약, 계피, 정향, 현호색, 육두구, 건강, 창출, 진피, 후박, 고추냉기, 엘멘톨 등 11종을 함유하고 있다.

지난 1966년에는 기존 활명수에 탄산가스를 첨가해 청감강을 더한 ‘개소활명수’가 발매됐으며 2002년에는 오약(烏藥), 지실(枳實), 감초(甘草) 등을 추가해 소화력이 강화된 프리미엄 브랜드 ‘활명수 골드’도 나왔다.

초창기에 가내수공업으로 생산했으나 현재는 전자동 생산라인에서 연간 1억병 생산, 연매출 400억원, 시장점유율 70%(2007년 기준)를 점하는 빅브랜드가 됐다는 게 동화약품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 美 증시 급락에도 코스피 올라

### 사흘째 美 증시와 반대 행보 아리송 “先반영일 뿐” “脫동조화 오래 못가”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와 사흘 연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내 증시가 미국의 반동 기대에 먼저 움직이는 것일 뿐 지속적으로 별도의 행보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라는 약제에 내성이 생긴 데다 국민연금 주식दै여 중단,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워런 버핏의 골드만삭스 주식매수 등이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째 상승하면서 1,150원대로 복귀했다.

2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4.61포인트(0.99%) 오른 1,495.98을 기록, 나흘 연속 상승하며 1,500선에 육박했다.

이날 지수는 미국 증시의 급락 소식에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공매도 주식의 재매수인 쇼트커버링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로 반전했다. /연합뉴스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S&P 500지수 등 3대 지수는 23일(현지시간) 7천여달러에 달하는 규제금융안이 의회에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1.18~1.56% 급락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코스피지수가 19일 미국 증시의 폭등 소식에도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23일에는 미국 증시가 4% 가량 폭락했음에도 오히려 1.44%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이로써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코스피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 4월2일부터 4월7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전날보다 3.08포인트(0.69%) 오른 448.80으로 장을 마감하며 이틀째 상승 행진을 이어가 갔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이처럼 미국과 엇박자를 나타내는 것이 국내 증시가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연합뉴스

## 국민銀 하반기 300명 채용

### CJ그룹도 마케팅·영업직 등 400명

국민은행은 하반기 신입행원을 300명 내외로 공개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학력, 연령과 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토요 700점 이상자이다. CPA(공인회계사), CFA(국제재무분석사), FP(자산관리사), AFPK(한국 재무설계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와 중국, 인도, 독립국가연합(CIS), 동남아 국가의 어학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

채용인원 가운데 지방에 필요한 인원은 해당 지역의 출신자와 연고자로 우선 선발한다.

입사 지원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CJ그룹도 올 하반기 총 400명 규모로 대졸 신입 및 인턴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주요 모집분야는 마케팅, 영업, 연구개발(R&D), 구매, 경영지원, 해외기획, PD, 방송기술 등이며, 대졸 신입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원) 졸업자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 인턴은 4년제 대학(원) 2009년 8월 졸업예정자로 제한된다.

지원서 접수는 25일 오전 9시부터 10월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22일 대졸 공채 최종 합격자는 12월 24일 발표한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H&T	☎메카커뮤니케이션 정규직 114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9/25	062-350-6333
☎에프에이뱅크	자동차에시스템 설계 및 제작 설치기술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9/26	062-962-8855
휴먼전자(주)	영업/납품담당자	고졸/경력5년	2200~2400	09/26	062-600-7522
금충월드	시설관리/가스보일러,소방관련 자격증 선임기술자	고졸/경력1년	2200~2400	09/27	062-350-8022
☎삼산기공	생산공무원 및 사무보조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27	062-954-3390
☎엘엠아트	정규직 실내인테리어 기사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28	017-621-6267
소보이	센스오는 사인디자인보조 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28	010-6610-8815
AS유통	입출고 서류 관리 온라인 판매 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9	062-432-8246
(유)경성산업	품질/납품영업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9	062-945-4780
이스카외국어학원	일본어/영어 강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232-1503
☎마트미트	매장영업관리(마트 공산,농산,축산,배달 부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945-5003
LGO노텍	LGO노텍 사무지원 여직원 (제품개발 이력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30	062-950-0458
코오롱건설	건설현장(이피트) 공무보조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30	062-959-1593

(광주접코리야 512-6210 제공)